

# 세계적 作家 작품이 5000만원대인데... 이름도 없는 유씨가 同級?

400여장 200억원에 강매혐의 국내선 일반 전시회 안열어 해외서 팔아 비자금 만든 의혹

유씨 주변 "해외 전시회 작품 자신의 회사에 강매하고선 세계적인 작가로 행세"

파리·뉴욕의 지사 통해 계열사에 사진 팔아온 듯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이 '얼굴 없는 사진가'로 해외 활동에 집중된 배경에는 사진 작품을 매개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회장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계열사에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서 개인 자금을 챙기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도 세모 계열사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거래 과정을 낱알이 훑고 있다.

◇파리·뉴욕·프라하 등서 10차례 공개 전시회, 국내선 한 번도 안 열

유 전 회장은 해외에 자신을 자연의 풍경과 동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사진가로 소개해 왔다. '아해닷컴(aha.com)' 사이트는 그의 작품에 대해 '너무도 단순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so simple, so beautiful, so perfect)'는 찬사와 함께 그가 최근 4년 동안 모두 10차례 전시회를 열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4월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 전시회를 시작으로 런던과 체코 프라하, 모스크바,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플로렌스 등에서 잇따라 사진전을 열었다. 유 전 회장은 이듬해 6~7월 파리 루브르박물관 정원에서 '나의 창을 통하여(Through my window)'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작년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파리 베르사유궁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전시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사진 강매하면서 세계적 작가로 행세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유 전 회장 작품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작품성이 없는 자신의 작품을 계열사에 판매하고 사진 판매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 전 회장 계열사들이 '아해' 사진 400여장을 2000만달러(약 200억원)에 매입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한 점당 가격이 무려 5000만원인 셈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달력 개당 500만원씩 받고 13개 계열사에 수익원이

차익 강매해 왔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유 전 회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해외 사진전에 걸여놓은 자기 작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나 관련 인사들에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원어치의 강매했다고 들었다"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세계적인 작가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열사에 팔린 유 전 회장 작품의 가격은 현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세계적인 사진 작가 배병우의 '소나무 사진'(130×260cm)은 지난 2005년 영국 가수 엘튼 존에게 2700만원에 팔렸다. 배병우의 대작(大作)은 요즘 5000만~6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술품 경매 전문가는 "국내의 중견 작가들의 작품 가격도 수백만원대에 그친다"며 "솔직히 국내에서 유 전 회장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남이 운영한 연구소 통해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유 전 회장은 차남 유혁기(42)씨가 운영하는 뉴욕의 '헤마토-센트럴 라이프 연구소'와 파리의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의 지사를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온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뉴욕에서 50km쯤 떨어진 마운트키스코스시(市)에 있는 헤마토-센트럴

라이프 연구소는 혈액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소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의 작품 판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구소 현관 유리문에는 '헤

마토 연구소'와 '아해 프레스'라는 이름이 위아래로 새겨져 있었다. 본지 기자가 24일(현지 시각)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일과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

다. 출입자도 거의 없었다. 미주 한인의사회 관계자는 이 연구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영사관이나 주미 한국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소

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 전 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행사를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진 기자 뉴욕·파리·나지홍·이성훈 특파원



이해 홈페이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 미술관서 열린 '아해 사진전' 모습.

## "유씨의 루브르 사진 展示는 거액 기부해 성사된 것 베르사유궁전 분수 재단장하는 데도 20억원 후원"

'아해' 정체를 밝힌 佛기자 "유씨 작품, 아마추어 수준"

해외에서 '얼굴 없는 사진가'로 알려진 아해(Ahae)가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은 프랑스의 전시(展示) 전문 인터넷 매체인 '루브르 푸르 투(Louvre pour tous)' '모두를 위한 루브르'란 뜻'이다.

이 매체는 유 전 회장이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전시회를 열던 작년 8월, 당시 전시 기획자였던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의 영문 이름(Keith H Yoo)을 단서로 인터넷 자



료와 서적을 뒤져 유 전 회장이 '아해'임을 밝혔다. 이 기사를 쓴 베르나르 아스케노프(49·사진) 기자는 24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재능도 없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베르사유궁전과 루브르박물관 등 대역(大역)가 쉽지 않은 곳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무명(無名) 인물인 유 전 회장이 이런 전시회를 성사시킨 배경과 관련, "거액의 후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스케노프 기자는 "유

## 유씨 長女도 세모 계열사 일감 싹쓸이

디자인회사 만들어 사업 관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인 유선나(48)씨가 디자인 회사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관련 계열사들의 일감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알디자인'은 큰아들 유대균(44)씨 소유의 고급 레스토랑 '몽테 크리스토폴'가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H빌딩 상가에 입점해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큰딸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

에 체류 중인 삼나씨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모래알디자인 홈페이지에는 2003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 인쇄·디자인·인테리어 등 각종 분야 실적이 망라돼 있다. 거의 대부분이 세모그룹과 관련된 사업이다. 모래알 디자인은 '다판다' 등 세모그룹 계열사 매장 공사과 다단계 제품인 숙면 저가 '내클리어', 종이버누-라면 등의 상품 디자인을 맡았다. 세모 계열사의 각종 행사·전시회 주관과 홈페이지 디자인도 수주했으며,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한강 수상 택시 디자인도 담당했다.

또 장남 유대균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초콜

릿 가게, 유기농 카페 인테리어도 맡았다. 세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문진미디어가 운영하는 영어 서적 판매점 '킴앤존슨'의 공사는 물론이다. 유선나씨의 남편은 현재 문진미디어의 지분 15%를 보유한 3대 주주(株主)로 등재돼 있다.

이뿐 아니라 모래알디자인은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유한 라렌다 농장과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2005~2006년 페스티벌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등 해외에서도 계열사일감을 싹쓸이했다. 2011년에는 미국 뉴욕시 그랜드센트럴역에서 열린 아해 사진전과 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아해 사진전의 후원을 맡았다. 한경진 기자



아해 프레스 헤마토-센트럴 라이프연구소(뉴욕) 뉴욕=나지홍 기자



아해 프레스 프랑스(파리) 파리=이성훈 기자

라이프 연구소는 혈액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소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의 작품 판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구소 현관 유리문에는 '헤마토 연구소'와 '아해 프레스'라는 이름이 위아래로 새겨져 있었다. 본지 기자가 24일(현지 시각)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일과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출입자도 거의 없었다. 미주 한인의사회 관계자는 이 연구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영사관이나 주미 한국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소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 전 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행사를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진 기자 뉴욕·파리·나지홍·이성훈 특파원

Advertisement for Regent Marine Jeju Hotel.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otel and surrounding area. Text includes: '제주에서 처음이다!', '바닷가 호텔타운 앞 수익형 호텔 입지에 감탄하다! 수익률에 놀라다!', '호텔 리젠트마린 제주', '연 11% 수익보장', '계약금 10%', '객실 등기분양', '중도금 60% 무이자', '연 7일 객실 무료이용', '리젠트마린제주 호텔의 오너가 되십시오!', '10년간 운영계약!', '호텔 수익금이 매달 통장으로...', '택터아파트 MOU 체결로 환금성 확보!', '제주국제공항/제주여객터미널 10분대 거리!', '가동률 90%에 육박하는 놀라운 호텔 투자처!', '호텔 앞 70m 전방에 아름다운 제주 바다 풍광!'